



자녀양육지원제도와 가족 유형별 빈곤 수준 국가 비교*

초록

- ▶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빈곤 수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가구 유형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음.
- ▶ 특히 국가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의 가구 유형별 빈곤율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구성이 해당 국가의 가구 유형별 빈곤율과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여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1 연구배경 및 문제점

- ▶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빈곤 수준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자녀 양육 지원 제도와 해당 국가의 가구 유형별 빈곤율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았음.
- ▶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첫째, 국가별로 자녀양육지원제도의 구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OECD 자료를 활용하였음. OECD 자료 중에서도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하 SOCX)와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를 참고하였음.
 - 둘째, 가족의 유형에 따라 빈곤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LIS 자료를 활용하였음. 본 연구는 국가의 전반적인 빈곤 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LIS 주요 지표(Key Figures)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였음(주 2).
 - 분석 방법은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국가의 제도 발달 수준과 가구 유형별 빈곤 수준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산점도(scatter plot)를 추가로 제시하였음.

* 이 이슈페이퍼는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송효진·조선주·남궁윤영·최진희·박미진·박은정(2024).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분석 결과

● LIS의 가구 유형별 빈곤 수준

▶ 국가마다 유자녀 가구의 빈곤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고, 가구 유형별 빈곤 수준에 대해 파악하였음.

- 이를 위해 LIS의 주요 지표 중 아동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양부모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한부모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3개를 추출하였음(주 3 참조). 세 개의 지표는 모두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상대적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후에, 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었음.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개의 지표는 모두 상대적 빈곤율을 중위소득 50%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선보다 낮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1〉 가구 유형별 빈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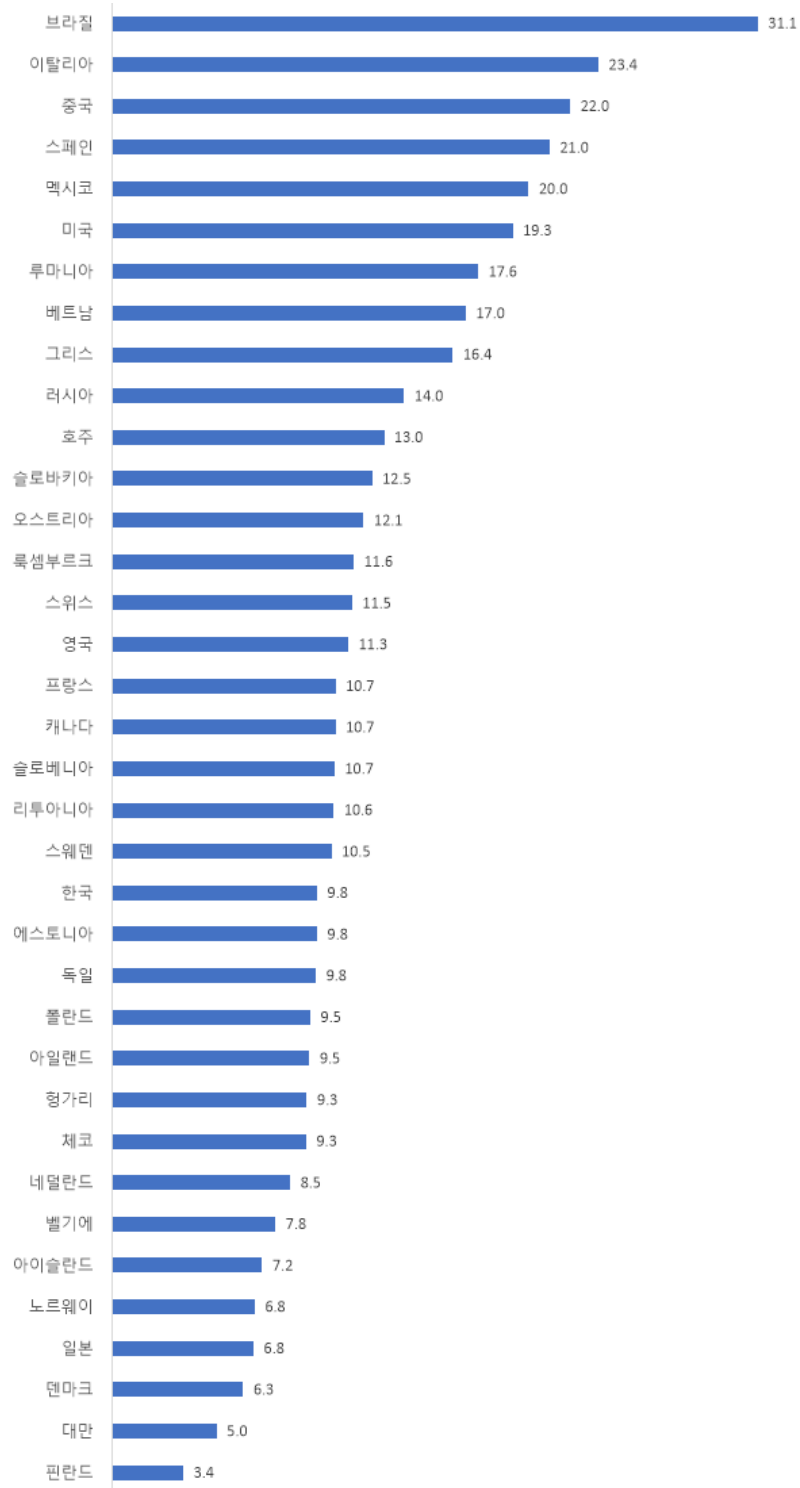
지표	조작적 정의
(1) Relative Poverty Rates – Children (50%)	아동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50%).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2) Children Poverty Rates – Two-Parent Families (50%)	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50%).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3) Children Poverty Rates – Single-Mother Families (50%)	한부모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50%).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 연구진 작성

▶ 먼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 빈곤율(50%)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브라질의 아동 가구 상대 빈곤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23.4%), 중국(22.0%), 스페인(21.0%), 멕시코(20.0%), 미국(19.3%) 순으로 상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 중위소득 50%보다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아동 가구의 비율이 9.8%로 10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빈곤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핀란드 아동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3.4%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만(5.0%), 덴마크(6.3%), 일본(6.8%), 노르웨이(6.8%), 아이슬란드(7.2%) 순으로 상대 빈곤율이 낮게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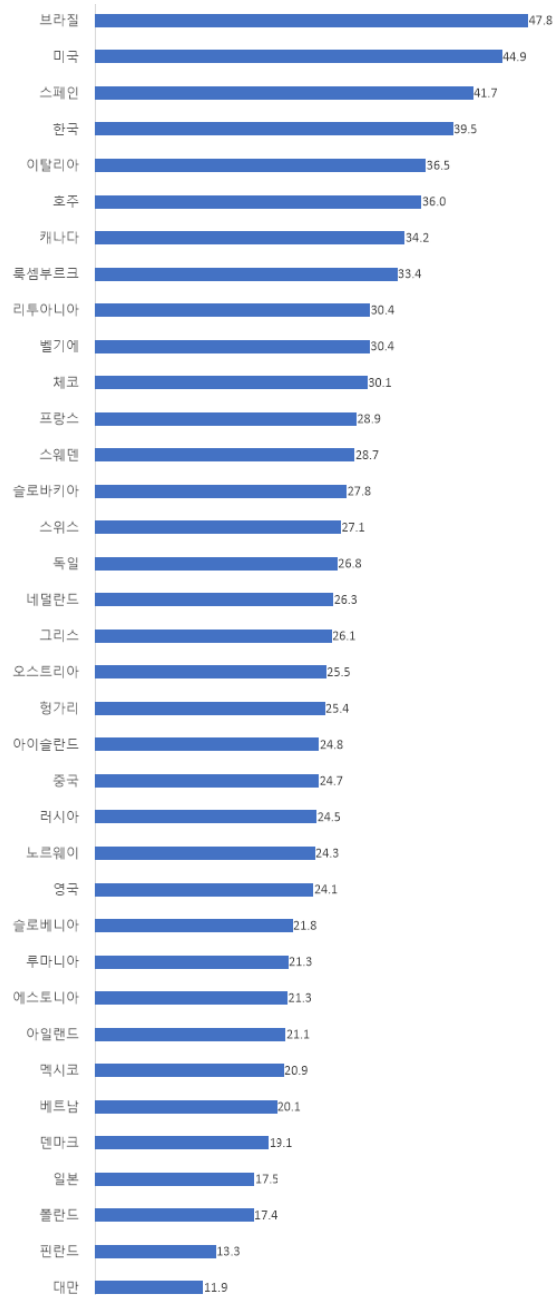
아동 가구의 상대 빈곤율



출처: LIS 주요 지표

- ▶ 다음으로 전체 아동 가구 중에서 부모가 한 명만 존재하는 한부모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확인하였음. 전반적인 아동 가구 빈곤율과 비교하여 특정 가구 유형의 빈곤율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한부모 가구와 같은 가구 유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음.
- L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브라질의 한부모 가구 상대 빈곤율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미국(44.9%), 스페인(41.7%), 한국(39.5%), 이탈리아(36.5%), 호주(36.0%), 캐나다(34.2%) 순으로 상대 빈곤율이 높았음. 상대적으로 한국의 아동 가구 빈곤율(9.8%)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가구주의 혼인 지위에 따라 가구의 빈곤 위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한편 대만(11.9%), 핀란드(13.3%), 폴란드(17.4%), 일본(17.5%), 덴마크(19.1%) 등의 국가는 한부모 가구의 상대 빈곤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부모 가구의 상대 빈곤율



출처: LIS 주요 지표

▶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구와 양부모 가구의 빈곤 수준 격차를 파악해 보았음. 즉 자녀를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전반적인 빈곤 상황과 가구주의 혼인 지위에 따른 가구의 빈곤 상황 차이를 바탕으로 한부모와 양부모 가구의 빈곤 격차를 살펴보았음.

- LIS 주요 지표에서 한부모와 양부모의 빈곤율을 추출하여 계산한 결과, 미국에서 한부모와 양부모 간의 빈곤율 격차가 32.1%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국의 한부모 빈곤율(44.9%)은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가구 유형 간 빈곤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가구 유형 간 빈곤 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으로 확인되었음. 한국은 높은 한부모 빈곤율(39.5%)과 낮은 양부모 빈곤율(8.0%)로 인해 두 가구 간의 빈곤 격차(31.5%)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호주(27.3%), 캐나다(26.7%), 벨기에(25.7%) 순으로 빈곤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편 한부모 가구와 양부모 가구의 빈곤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로는 멕시코(0.8%), 중국(3.2%), 대만(8.4%), 폴란드(8.7%), 그리스(10.4%), 핀란드(11.6%) 등이 존재했음. 대체로 영미권 국가들에서 양부모와 한부모 간 빈곤 격차가 큰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 한부모와 양부모 가구의 빈곤 격차

(단위: %)

국가	빈곤 격차	한부모 빈곤율	양부모 빈곤율
미국	32.1	44.9	12.8
한국	31.5	39.5	8.0
호주	27.3	36.0	8.8
캐나다	26.7	34.2	7.5
벨기에	25.7	30.4	4.7
리투아니아	25.3	30.4	5.1
룩셈부르크	25.2	33.4	8.2
체코	23.7	30.1	6.4
스페인	23.6	41.7	18.1
스웨덴	22.1	28.7	6.6
프랑스	22.1	28.9	6.8
브라질	21.9	47.8	25.9
아이슬란드	21.4	24.8	3.4
독일	20.6	26.8	6.1
노르웨이	20.6	24.3	3.7
네덜란드	19.9	26.3	6.5
헝가리	19.0	25.4	6.4
스위스	17.6	27.1	9.5
슬로바키아	16.9	27.8	10.9
영국	16.4	24.1	7.8
덴마크	16.0	19.1	3.1
오스트리아	15.4	25.5	10.1
이탈리아	14.6	36.5	21.9
아일랜드	14.0	21.1	7.1
에스토니아	13.2	21.3	8.1
러시아	12.7	24.5	11.8
일본	12.1	17.5	5.4
슬로베니아	12.0	21.8	9.8
핀란드	11.6	13.3	1.6
그리스	10.4	26.1	15.8
폴란드	8.7	17.4	8.7
대만	8.4	11.9	3.5
중국	3.2	24.7	21.5
멕시코	0.8	20.9	20.1

출처: LIS 주요 지표

○ 자녀양육지원제도와 가구유형별 빈곤의 관계 분석

- ▶ 아동 가구 및 가구 유형별 빈곤 수준과 가족 지출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일부 국가에 결측 정보가 존재하여, 30개 국가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음(LIS에서는 총 34개 국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OECD 자료에는 대만, 러시아, 브라질, 중국의 자료가 부재하였음).
- ▶ 우선 각 국가의 GDP 대비 가족 지출 수준은 아동 가구 및 양부모,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가족 지출 수준의 증가는 아동 가구 및 양부모,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총 가족 지출과 아동 가구의 빈곤율의 상관관계수는 -.641로 상당히 높은 부적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음.
- ▶ 반면, 각 국가의 GDP 대비 현금 형태의 가족 지출 수준은 전체 아동 가구 빈곤율과의 관계에서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드러냈음. 즉, 가족 지출(현금)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가구의 빈곤율이 낮아짐을 시사함. 반면, 현금 형태의 가족 지출은 양부모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부적 관계를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음. 한편, 현물 형태의 가족 지출은 아동 가구 및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부적 상관성을 드러냈음.

〈표 3〉 아동 가구 빈곤율과 가족 지출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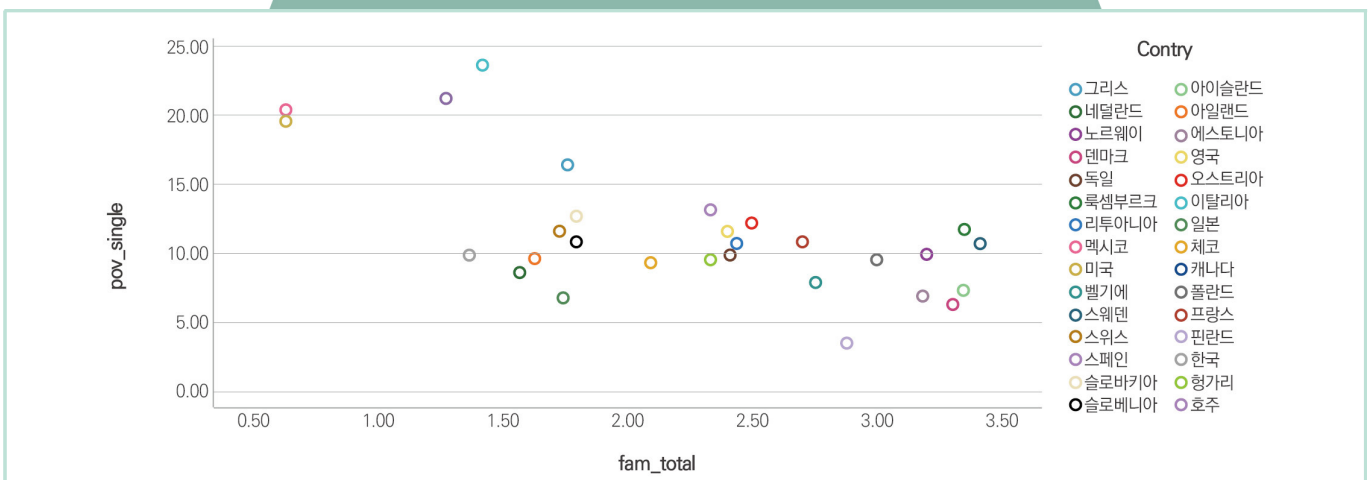
	아동가구의 빈곤율	양부모가구의 빈곤율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총 가족지출	-.641**	-.661**	-.398*
가족지출(현금)	-.384*	-.357	-.301
가족지출(현물)	-.548**	-.607**	-.276

주: ** $p < 0.01$, * $p < 0.05$

출처: 연구진 작성

- ▶ 다음으로는 총 가족 지출 수준과 가구 유형(아동 가구, 양부모, 한부모)별 빈곤율과의 상관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X축을 총 가족 지출로, Y축을 가구 유형별 빈곤율로 설정하여 산점도(scatter plot)를 제시해 보았음. 먼저, 전체적인 아동 가구와 가족 지출 간의 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적 상관관계를 드러내었음.
- 가족 지출 수준이 GDP 대비 1% 이하인 멕시코(0.6%)와 미국(0.6%)에서 아동 가구 빈곤율이 각각 20.0%와 19.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또한 아동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23.4%)와 스페인(21.0%)의 가족 지출 수준은 각각 1.4%와 1.3%로 확인되어 두 국가의 가족 지출 수준이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아동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핀란드(3.4%)와 덴마크(6.3%)에서는 가족 지출 수준이 각각 2.9%와 3.3%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음. 에스토니아(9.8%)와 독일(9.8%)은 한국(9.8%)과 아동 가구 빈곤율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에스토니아의 가족 지출 비중은 3.2%, 독일은 2.4%로 한국(1.4%)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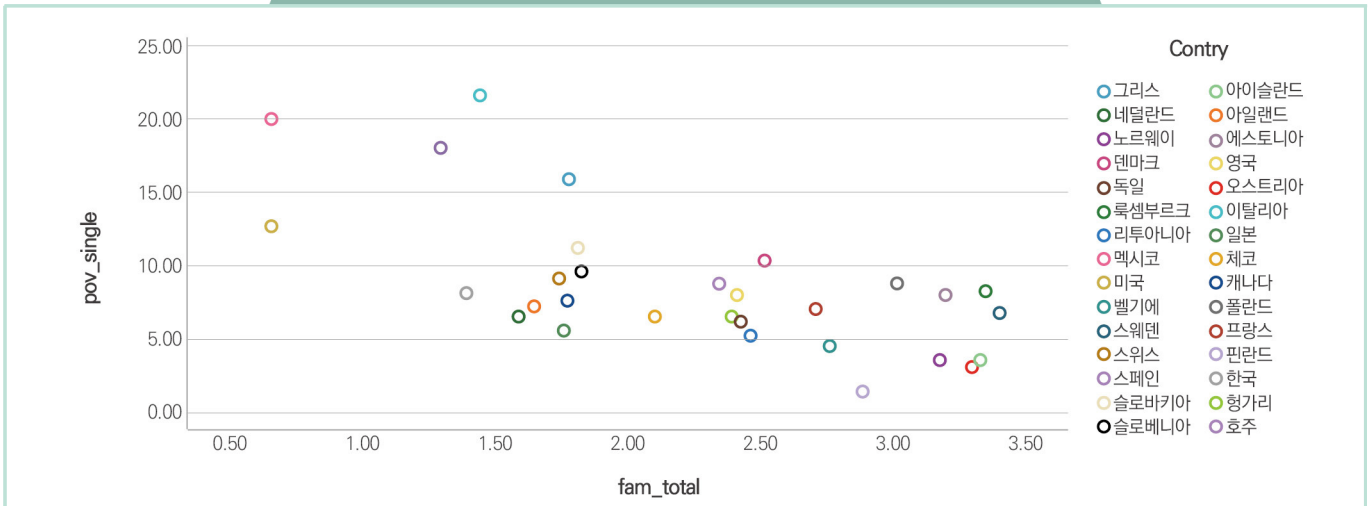
아동 가구의 빈곤율과 가족 지출 수준의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 ▶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가족 지출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 가구와 마찬가지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즉,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가족 지출 수준이 높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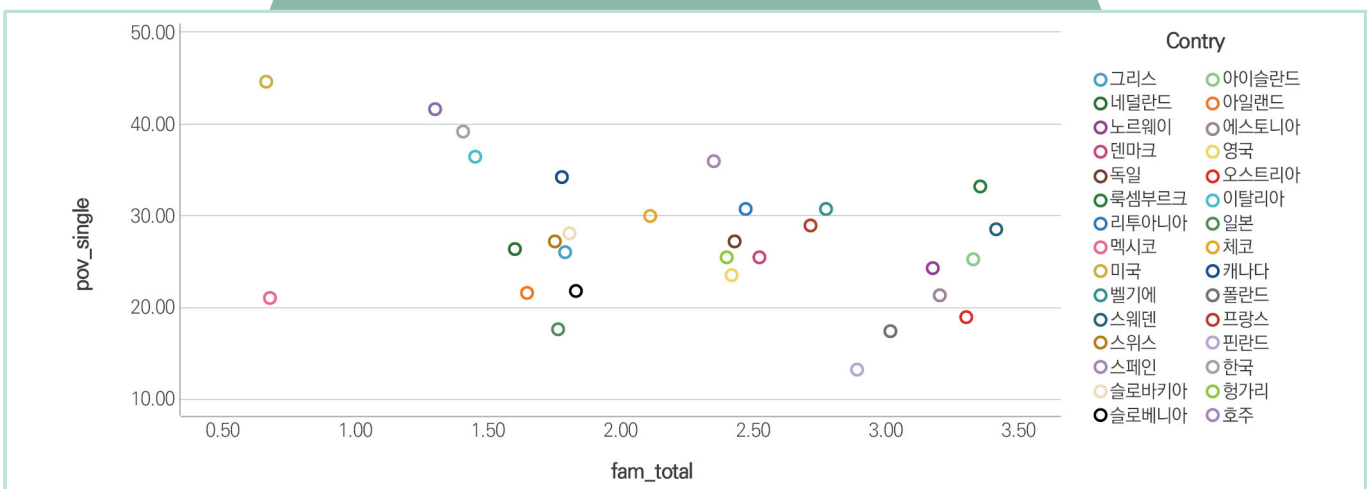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가족 지출 수준의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 ▶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가족 지출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적 상관성은 다소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가족 지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가족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인 미국(0.6%)과 멕시코(0.6%)의 경우,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 패턴이 상이하였음. 미국의 한부모 가구 빈곤율이 44.9%인데 반해, 멕시코에서의 한부모 가구 빈곤율은 20.9%에 불과하였음.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가족 지출 수준의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 ▶ 상기의 분석을 통해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가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와 함께 한부모의 빈곤을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완화하는 제도인 선지급제도의 경우 한부모 빈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평균 비교로 살펴보았음. 그 결과, 선지급제도가 있는 국가들의 한부모 가구 빈곤율 평균값은 26.3%로 선지급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의 빈곤율 평균값(29.6%)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4〉 OECD 국가의 선지급제도 존재 여부

	선지급제도 존재 여부
있음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없음	그리스,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출처: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1.5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구체적으로, 선지급제도가 있는 국가들에는 노르웨이(24.3%), 덴마크(19.1%), 독일(26.8%), 스웨덴(28.7%), 영국(24.1%), 프랑스(28.9%), 핀란드(13.3%) 등 유럽 국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낮은 편에 속하였음. 반면 미국(44.9%), 캐나다(34.2%), 한국(39.5%), 호주(36.0%) 등 영미권 국가나 아시아 국가군에서는 선지급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선지급제도의 존재는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본 분석은 모형의 특성상 거시 수준에서의 기초적인 탐색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당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다른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3 함의 및 제언

- ▶ 가족 지출 수준의 확대는 양부모 가구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사회 지출의 제공 형태(현금 혹은 현물)에 따른 특이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음. 즉, 현금 및 현물 등 지원 형태가 무엇인지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가족 관련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한국의 가족 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에 불과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았음. 최소한 OECD 평균인 2.1%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에 더하여 가족 특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함.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적절한 조합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선지급제도의 존재는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도입(2023.7.1.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 빈곤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방향을 고민하여야 함. 한부모 가구의 빈곤을 직접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선지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이 요구됨.
- 한부모 가구의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그리고 양육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양육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도입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지만 향후 소득기준 요건(중위소득 150%이하)에 대한 개선 방향이 검토되어야 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적절한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보편적인 수당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지급수당의 지급 수준에 있어서도 실제 양육비 이행 금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적절성과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나아가 생계급여 등 다른 수당과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주 1) 본 이슈페이퍼는 송효진·조선주·남궁윤영·최진희·박미진·박은정(2024).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서울: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 제Ⅲ장 3.절(박미진 객원연구원 집필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진들이 도출한 함의와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구성한 것임. 상세 내용 및 참고문헌은 상기 연구보고서를 참조 바람.

주 2) LIS > Inequality and Poverty Key Figures(<https://www.lisdatacenter.org/lis-ikf-webapp/app/search-ikf-figures>, 검색일: 2024.9.1)

주 3) 세 개의 지표는 각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되었으며, 국가별 추출된 연도는 다음과 같음: 그리스(2016), 네덜란드(2021), 노르웨이(2021), 대만(2021), 덴마크(2022), 독일(2020), 러시아(2021), 룩셈부르크(2021), 리투아니아(2020), 멕시코(2022), 미국(2022), 벨기에(2021), 브라질(2022), 스웨덴(2021), 스위스(2019), 스페인(2019), 슬로바키아(2018), 슬로베니아(2015), 아이슬란드(2010), 아일랜드(2021), 에스토니아(2016), 영국(2021), 오스트리아(2021), 이스라엘(2021), 이탈리아(2020), 일본(2013), 중국(2018), 체코(2016), 캐나다(2019), 폴란드(2020), 프랑스(2020), 핀란드(2016), 한국(2021), 헝가리(2015), 호주(2018). 참고로, 한국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되었음.